

Pierre Baillot:
Advocate of the French school

The Young Baroque Violinist
Théotime Langlois De Swarte

Sol Gabetta
Life Lessons

SINCE 1890

the

Strad

KOREA

MARCH 2022 VOL.277

www.mastmedia.co.kr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삶은 끊임없이 아타카, 생은 끊임없는 카덴차

*Augustin
Hadelich*



9 771599 300000
ISSN 1599-3000

03

격리 해제된 음악

마시모 자네티

Massimo Zanetti

3월 3일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19일, 20일 양일간 슈만 교향곡 3번과 4번을, 그리고 4월 3일 드뷔시 바다와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분수를 연주하는 마스터피스 시리즈 두 번째 연주를 선보이며 지휘자 마시모 자네티는 긴 시간 경기필과 함께 한다.

마시모 자네티는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해외 입국자들에게 문이 열렸을 때도 상임 지휘자라는 직함에게 주어지는 비자 문제로 그에게는 자가격리를 종용했다. 마시모 자네티는 그럼에도 자신의 악단에 대한 애정과 열의로 수 없이 많은 날의 격리를 감수하고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나갔다.

이번 3월의 공연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의 장기인 오페라의 완성도를 위해 일찌감치 내한해 7일의 자가격리를 거쳤다. 보통 두 세 번의 리허설을 하는 다른 연주들과 달리 그의 음악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연주가 20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벌써 리허설에 돌입했다.

경기필의 매해 시즌 프로그램을 보면 오케스트라 발전을 위한 확실한 목표가 있다고 느껴진다. 지난해에 이어 교향곡 3번과 4번을 연주하는 슈만 교향곡 전곡 연주는 어떤 목적을 갖고 기획했는가.

지난 3년 동안 항상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GPO)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교향곡 연주가 완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곡 연주는 꿈직한 전염병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했고, 지난 12월의 스트라빈스키에만 전념했던 마지막 연주회도 마찬가지였다.

슈만 교향곡은 연주가 매우 어려워 일류 오케스트라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오케스트라를 가능해 볼 필요가 있었다. 슈만 사이클을 타진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 작곡가는 한국에서 큰 호응을 이끌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향곡 1번과 2번을 지난 7월에 연주했는데, 정말로 평범하지 않았고 거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원래는 2021년 9월 사이클을 완성할 계획이었고, 콘서트는 바로 매진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지 못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행복하게도 이를 이번에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관객들이 콘서트홀로 돌아와 그들의 소중한 성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슈만 교향곡의 특징을 얘기해 달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슈만보다 자주 연주되는 브람스 교향곡과 비교해보자면.

이 두 거인을 비교해 표현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브람스가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40세였다. 이는 그에게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음악에 대한 지식이 가공할 수 있을 정도였고, 우리는 그의 작곡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음악학자 마틴 깁은 이러한 측면을 완벽하게 묘사했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베토벤의 유산이며, 보편적인 동경과 더불어 새로운 후기 낭만적 감성에 스며든 통일된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 것들이 마치 돌에 조각 된 것 같다.’ 이는 브람스만 해낼 수 있는 엄청난 임무였다.

슈만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에서 출발한다. 그는 31세의 나이에 중요하고 매우 풍부한 피아노 작품들과 가곡을 작곡하는 단계를 거쳐 교향악에 입문했다. 그는 슈베르트 세계와 긴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한다. 슈만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의 필사본을 소유하여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슈만의 접근은 작곡가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좀 더 친밀한 형태로 움직인다. 가곡의 기초인 순환형태를 슈만은 교향곡에서도 사용하는데, 이는 연속적인 주제적 언급과 하나의 담회에서 서로 움직임을 통합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당신이 슈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리스너로서 나는, 그의 음악적 언어가 직접적이지는 않기에 슈만을 어렵게 느낀다.

당신의 말을 이해하며, 우리는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전-베토벤 모델을 수용하는 한편, 슈만에서는 움직임 사이에 네 가지 주제적 통합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관현악적 개념이 리스트와 슈트라우스의 교향시에 도달할 하나의 생각(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과 비슷한)이 싹트는 것처럼 보인다. 브람스의 교향곡에 비해 주관적이고 친밀한 접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단편적인 담론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3월에 연주 할 두 교향곡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완전히 다른 시기에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교향곡 3번은 슈만이 음악감독으로 라인란트에 살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뒤셀도르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당시의 모든 감각과 정서를 완벽하게 담은 음악이다. 작품에서는 자신의 존재의 암울한 세월 후에 희망과 낙관주의에 가득 찬 것처럼 나타난다.

이 빛나는 교향곡의 첫마디부터 우리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 넋을 잃고 당시 대중 음악의 일종인 운율인 곡 전체를 통해 흘러나온다. 바흐와 관련이 있는 플랑드르 바로크 양식의 대위법을 재연하기도해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에 더 큰 장엄함을 부여 한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교향곡 4번은 1841년 작곡된 첫 번째 교향곡으로,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제안하고,
함께 일하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1번 이후 10년 간 서랍 속에 있다 1851년 슈만이 직접 수정해 4번으로 분류 되었다. 1851년 버전보다 투명성과 신선함이 뛰어나 이 문제 있는 교향곡의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하는 것이 더 좋았다. 이는 슈만에 의해 '하나의 움직임의 교향곡'으로 묘사되는데, 각 교향곡은 멈추지 않고 자발적인 느낌으로 다음으로 스며드는데, 특히 1841년 버전에서는 '첼로 같은 스타일'과 가벼운 투명성으로 묘사된다.

경기필의 음악을 들을 때 솔직히 연주자라면 매우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음악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집요한 지휘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경기필은 음악적으로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다.

나 자신을 '민주적인 지휘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경기필 단원들에게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웃음). 나는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제안하고, 함께 일하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종종 그들은 내 제안의 방향을 이해하고 나면, 이를 풍부하게 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음악적 문구, 악센트, 색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보낸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마치 그들이 내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답죠?"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순수한 기쁨이며 그들과 함께 연주하며 느꼈던 엄청난 행복이다. 직접 리허설에 와서 이를 보았으면 좋겠다.

4월에는 레스피기의 로마 시리즈를 완성한다. 먼저 이런 좋은 음악을 듣게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레스피기와 슈만의 음악적 어법은 완전히 다르다.

'로마의 분수'로 레스피기 로마 3부작을 완성한다. '로마의 축제'와 '로마의 소나무'에 대한 놀라운 반응에 따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길이 열렸다. 이 곡은 세 편의 교향시 중 가장 명상적인 작품이며 아마도 덜 과장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두 편의 교향시보다 덜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다. 두 작곡가의 캐릭터의 중요한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레스피기는 우리가 앞서 슈만에서 설명했던 친밀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의 접근법과 의도는 외부 세계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건전한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교향시 형식이지만 교향곡처럼 훌륭한 기술과 기악적




으로 웅장함이 결합되어 있으며 음향 효과 연구의 진정한 대가들인 드뷔시나 라벨의 어법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를 드뷔시의 최고의 걸작, 교향시 바다와 결합했다. 두 작품 사이에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 경기필이 처음으로 다루는 이 곡은 극한의 난이도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물은 생명력과 정확력을 가진 그들을 하나로 묶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연주한 임주희가 함께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로 시작한다. 훌륭한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가인 그녀는 어린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하다. 정말 인상적이다!

정말 많은 날을 자가격리로 보냈다. 자가격리에 노하우가 생겼는가.

지금 막 끝난 마지막 격리를 고려하면,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5개월 이상 완전히 즐겁지 않은 상태로 보냈다. 노하우는 없다. 나는 오직 음악과 오케스트라에 대한 큰 사랑,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필 단원 모두가 이 어려운 시험을 견뎌내게 했다. 하지만 이는 그뿐만한 가치가 있다고 장담한다.  글 | 정소연